

# 민주당 추진 '세비 30% 삭감' 공염불 우려

## 새누리당 "전형적 이벤트 정치" 일축 여야 합의 '세비 심의위' 발족 미지수

민주당은 지난 2일 대선 패배를 진단하는 워크숍을 통해 '세비 30% 삭감'을 결의했지만 '공염불'로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민주당 비대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세비 30% 삭감 방안을 혁신 과제에 포함시키고 정치혁신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세비 30% 삭감을 현실화하기 위해 국회 내에 여야 합의로 '세비 심의 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도대로 세비 30% 삭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세비 30% 삭감안에 대해 전형적인 이벤트 정치라고 일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세비 심의 위원회' 구성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임위 통과

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내부 반발도 상당하다. 세비 반납과 혁신이 별다른 연관성이 없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오하러 남은 임기동안 세비 동결 등이 현실적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워크숍 직후, 배기운 의원은 "민주당 혁신 7대 신조라고 나눠줬는데 뭘 지 모르겠다. 세비 30% 삭감 등이 어떻게 신조가 되냐"며 "인기연합적 표현들이 신조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전대준비위원회 위원장도 "신조는 종교적 언어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거 통과시키면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했습니다. 맘속은 아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세비 30%를 일괄적으로 각출, 불우시설이나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거부 행위라는 점에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세비 30% 삭감 방안이 결국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이 세비 30% 삭감 공세를 펼치다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다는 명분으로 뒤로 물러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세비 30% 삭감에 대한 당내 동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 같은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에선 세비 30%를 언제부터 삭감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 3년이나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세비를 30%나 삭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과제"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세비 30% 삭감의 명분에 빠져서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김용준 인수위원장·시도지사 오늘 첫 만남 지역 대선 공약·현안 논의할 듯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과 광주·전남 등 전국 17개 시·도 지사들이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6일 오후 4시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용준 위원장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인수위 출범 이후 첫 공식 만남을 갖는다.

이날 만남은 김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지역 공약과 현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태 광주시장은 '자동차

10만대 생산도시 조성'을 비롯해 박 당선인이 광주에 약속했던 7대 공약과 함께 '동북아 상품거래소 설립' 등 공약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중시하고 있는 현안과 제 7건에 대해 설명하고, 새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F1대회 정부지원 ▲KTX 광주~목포 노선 단일화 ▲호남사람 타령 등용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육성 등 7대 과제의 실현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zuck@kwangju.co.kr

## 문화상 "친노, 차기 전대 출마하면 안돼"

민주당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의원직 사퇴 주장과 관련, "약지로 그러면 부관참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의 오펀에서 "대선 패배는 후보의 무한 책임"이라면서도 문 후보의 의원직 사퇴에는 이같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차기 전당대회에 친노(친노무현)·주류 그룹의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안 된다.

용서가 안 된 상황에서 나오면 혼란이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주류가 친노는 절대 안된다고 하면 국민으로부터 당권을 잡으려고 그런다는 오해를 받고 당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친노 배제론'을 경계했다.

당내 대선평가와 전당대회 준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문 비대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평가 및 준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김숙 유엔 대사 "북한 핵실험 임박"

### 유엔안보리, 핵 실험 강행때 강력한 행동 취할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면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가 4일(현지 시간) 밝혔다. 2월 한 달간 안보리의 장을 맡는 김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15개 이사국이 국가명 영문 앞과 뒷 순서로 돌아가면서 1개월간의 장을 맡는 안보리 규정에 따라 이달 한 달간 의장국으로 활동한다.

김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입장은 통일돼 있고 단호하다"면서 "북한이 핵실험

을 한다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미 3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실험 시기로 설인 오는 10일이나 김 정일의 생일인 오는 16일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보리는 지난달 북한의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결의를 채택하면서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에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 日 독도전담 부서 신설...정부 철회 요구

### 외교부 "제국주의 침탈 역사 반성 못해 매우 유감"

일본이 독도 문제를 다룬 전담 부서를 신설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우리 정부가 이를 강력히 비난하며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NHK는 5일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다룬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내각관방은 총리를 직접 지원·보좌하는 부처로, 총리관저의 일부로 분류된다.

새로 설치하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지난해 11월말 내각관방에 설치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 대책 준비팀'을 강화한 조직이다. NHK에 따르면 이 준비팀에 쿠릴 4개 섬 문제를 다루는 내각부의 '북방대책본부'가 합쳐져 영토·주권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로 재편된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한다는 우리 정부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발표를 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이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발표한 것은 제국주의 침탈 역사를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면서 "정부는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시대 역행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아베 정권이 독도전담 부서 설치에 나서고 우리 정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옴에 따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일관계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영록 의원 '당직 복 터졌다'

### 비대위 사무총장·전대 총괄본부장·조직강화 특위장 맡아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이 민주당의 주요 당직을 연속적으로 맡아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을 맡아 당부 전진을 지휘하고 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김 의원의 중도적 성향의 정치적 색채가 사무총장 임명 배경이라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지난 2일 비대위 산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총괄본부장에 임명됐다.

전당대회 준비위는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주류와 비주류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관료 출신인 김

의원의 조정력이 힘을 발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조직강화특위 위원장도 맡아 총선과 대선 패배 이후, 점차 약화되고 있는 민주당의 조직 보강에도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어려울수록 서로가 가슴을 열고 소통에 나서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재건을 위해 맡은 바 길을 뚝뚝뚝 가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황주홍 "농축산부 수산·식품 실종...재분장해야"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5일 인수위가 농림수산물부문을 농림축산부로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 수산 식품 분야가 실종됐다며 식약처, 농림부, 해수부 업무의 합리적인 재분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를 위해 농림부와 해수부가 우선적으로 공동 협의체를 구성, 예산과 업무 중복과 규제 공백을 방지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운명철학

人間的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것일까? 또는 운명적 점자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서도 죽한게 제대로 못먹고, 신음하는 노후 인생과 빈명들은 정녕 노력을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을 모르고, 분마치름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 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숙명관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참고점점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저미두수 대가!

경천동지할 비술(천문 저미두수)로 수년동안 요절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해 하게 안내함, 역술과 풍수지리 철학의 길 기초부터 무로경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해 없음(무술인, 역술인 환영)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꿈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① 연수일정(2013년 제10기)  
· 개강일시 : 2012. 3. 4(월) 기초주간 14:00 기초야간 19:0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3. 1. 21(월) ~ 2013. 2. 28(목)  
· 수업기간 : 2012. 3. 4(월) ~ 2013. 6.17(금) (총 90시간)  
· 수 강 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반 주간반: 30명 기초반 야간반: 30명  
\* 기초반 수료자는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에 2단계 심화과정으로 진급함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금요일  
- 주간반 14:00~17:00  
- 야간반 18:00~21:00

● 수료 후 특전  
· 기초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1,2단계(기초, 심화)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①(사)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협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학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②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일 공휴일 휴무)  
· 전 화 (062)530-3873-3876  
담당교수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sle.jne.go.kr

###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 NPL투자

▶낙찰 받기가 유리하다  
▶대출이 많이 된다  
▶소자본으로 가능하다  
▶투자금 회수가 빠르다  
▶양도소득세가 없다  
▶수익률이 높다

(주)오현정매 H.010-3605-5000

---

### 경매비법 전수

▶회비:개인 1,100만원  
공동 550만원  
▶혜택:인1물건 낙찰 보장  
평생 경매 상담 무료  
사무실 사용 등등

(주)오현정매 H.010-4667-9300